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태언 문학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압촌섬,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넘버1 SUV는 G4렉스턴·쏘렌토·코나

<대형>

<중형>

<소형>

시장 점유율 34%…판매 성적표 보니

G4 렉스턴, 압도적 크기와 가성비로 인기 쏘렌토, 수입 SUV 뛰어넘는 상품성 갖춰 코나, 펀드라이빙 가능한 성능으로 인기



SUV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2011년 이후 해마다 16%대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 지난해에는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34%까지 높아졌다. 국내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메인 트렌드가 중형 세단(점유율 10.8%)에서 SUV로 완전히 옮겨간 것이다. 차급별 판매 1위 SUV 모델과 주요 특징을 살펴봤다.

●대형 SUV 1위 = 쌍용차 'G4 렉스턴'

G4 렉스턴은 10월 국내 시장에서 1278대를 판매해 기아차 모하비(937대)를 누르고 대형 SUV 1위를 차지했다. G4렉스턴의 인기 비결은 크기, 성능, 가격 3박자의 조화다. 중형 SUV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의 여유로움과 높은 시야, 차체 크기에서 오는 당당함이 매력이다. 실내 인테리어의 감성 만족도 역시 기대 이상이다. 어지간한 수입 대형 SUV에 뒤지지 않는다. 2.2 디젤엔진은 차체 크기와 비교해 주행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최고출력 187마력(3800rpm), 최대토크는 42.8kg·m이다. 최대토크가 일상 주행 영역인 1600~2600rpm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초기 출발에서 100km/h까지 시원시원하게 가속할 수 있다. 1.5GPa급 초고강도 기가 스틸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쿼드 프레임의 듬직한 하체가 주는 안정감도 매력 포인트다. 가격은 3350만~4510만원.



지난해 SUV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34%까지 치솟았다. 현대차 코나는 10월에만 3819대를 판매하며 3개월 연속 소형 SUV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사진제공 | 현대차

●중형 SUV 1위 = 기아차 '쏘렌토'

쏘렌토는 9월에만 1만16대가 판매되며 기아차 SUV 차량 최초로 월 1만대 클럽에 올랐다. 국산 중형 SUV의 최강자로 자리잡은 비결은 수입 SUV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압도적인 상품성. 7월말 동급 최초로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각종 편의사양을 보강한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출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단 변속기 덕분에 공인 복합 연비는 12.2km/L(도심 11.0km/L, 고속도로

14.1km/L)로 이전(11.6~12.0km/L)보다 향상됐다. 연비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초기 가속도 훨씬 더 가법다. 고속 주행으로 올라가면 꾸준한 힘을 내면서도 이전보다 부드러운 주행 감성을 만들어냈다.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R-MDPS)'을 동급 최초로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해 조향 감각도 더 민첩해졌다. 가격은 2.0 디젤 모델 2785만~3350만원, 2.2 디젤 모델 2860만~3425만원이다.



▲쌍용차 G4 렉스턴

▲기아차 쏘렌토

●소형 SUV 1위 = 현대차 '코나'

현대차 코나는 10월에만 3819대를 판매하며 그동안 1위를 지키던 쌍용차 티볼리(3710대)를 따돌리고 3개월 연속 소형 SUV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코나의 인기 비결은 작지만 강력한 '펀 드라이빙 능력'과 기존 소형 SUV를 넘어서는 적재 공간이다. 주행 감성도 경쟁 소형 SUV와 비교해 차이가 있다. 생각보다 제법 단단하고 묵직하다. 스티어링휠을 돌리는 감각에서도 경쟁 모델을 넘어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펀 드라이빙을 선호하는 타입이라면 최고출력 177마력(ps), 최대토크 27.0kgf·m의 성능을 발휘하는 1.6 가솔린 티보 GDi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조합에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 엔트리 모델에서도 첨단 안전 옵션인 현대 스마트 센스를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 폰 무선충전 시스템,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크 등 최신 편의 사양도 충실히 적용되어 있다.

원성준 기자 sereno@donga.com

“지스타 주인공은 우리” 베일벗은 WEGL



게임

지스타에서 첫 발을 떤 e스포츠 브랜드 'WEGL'이 베일을 벗었다. 액토즈소프트는 8일 서울 강남 역삼동 SO전벙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EGL 2017 파이널'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우선 대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 '지스타 2017' 현장에서 열린다. 총 상금은 2억4570만원이며, 한국과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중국, 호주 등 12개국에서 120명이 참가한다. 액토즈는 지스타참가자 중 가장 큰 규모인 300부스로 대회를 꾸민다. 두 개의 메인 스테이지엔 초대형 LED 화면을 배치해 관람 편의성을 높였다. 대회 종목은 오버워치, 하스스톤, 스타크

레프트:리마스터, 카운터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마인크래프트, 루프레이지, 철권 7, NBA 2K18, DJ맥스 리스펙트, 키네틱 라이트, 매드러너, 무한의 유물 등 12개다.

오버워치에서는 라이벌 팀 GC 부산과 러너웨이가 3대3 점멸전, 팀 테스매치로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하스스톤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의 참가가 확정됐으며 한국 대표 선발은 1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철권7엔 미국, 필리핀, 태국, 호주, 프랑스 등 각 대륙별 상위 5명의 해외 게이머가 초청됐다. 한국 대표팀은 배재민과 최진우, 송병민이다. 카운터스트라이크:글로벌오펜시브는 중국과 호주, 폴란드, 한국 등 네 팀이 참가한다.

관심을 모으는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는 이영호와 임홍규 등 ASL 시즌4의 4강 진출자들이 시드로 참가한다. 인기 개인방송 진행자 '악어' 진동민과 함께 하는 마인크래프트 종목에는 인기 스트리머들이 얼굴을 내민다. e스포츠 외에 걸그룹 우주소녀의 축하무대를 비롯해 가수 정진운, 김승현, 이항범 코치가 참여한 NBA 2K18 이벤트, DJ맥스 관련 초대 공연도 펼쳐진다.

전명수 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e스포츠가 기준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하는 시기다"며 "이번 대회가 그 중 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8일 기자회견에서 'WEGL 2017 파이널' 성공적 개최를 다짐한 서재원 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철권7' 중국 배재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종목 이영호, 개인방송 진행자 진동민, 전명수 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 부사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액토즈소프트

새로운 e스포츠…16일 부터 부산 벡스코서 파이널대회
엑토즈, 300부스 참가자 중 최대…다양한 이벤트 열려

“아쉽다”…안국현, 삼성화재배 결승 꿈 좌절

중국의 탕웨이싱 9단에 222수 흑 불계패

안국현 8단이 생애 첫 세계대회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안국현은 8일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준결승3번기 최종국에서 중국의 탕웨이싱 9단에 222수 만에 흑 불계패해 종합전적 1승 2패로 결승 문턱에서 좌초했다. 한국기사로는 유일하게 4강에 오른 안국현은 6일 1국에서 선승을 거둬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으나 2국과 3국을 연달아 완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로써 삼성화재배는 3년 연속 중국기사끼리 결승전을 치르게 됐다. 안국현을 꺾고 결승에 오른 탕웨이싱은 '제2의 커체'로 불리며 급부상하고 있는 무서운 신예 구쑤하오 5단과 12월 5~7일 같은 장소에서 결승3번기를 벌이게 된다. 탕웨이싱은 2013년 삼성화재배에서



3국이 끝나고 복기를 하고 있는 안국현(오른쪽)과 탕웨이싱. 사진제공 | 한국기원

우승한 이후 4년 만에 두 번째 우승상당에 나선다.

한편 한국은 2014년 대회에서 김지석이 우승한 이후 결승진출조차 하지 못하는 등 중국세에 밀리고 있다. 지난 2년간은 커체 9단이 우승컵을 안았다.

삼성화재배의 총 상금규모는 8억원, 우승상금은 3억원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한식당 가온·라연, 2년 연속 ★★★ 영광

미슐랭 가이드 서울 2018 발표

깜짝 놀랄 드라마틱한 선정이나 스타 강등 같은 반전은 없었다. 지난해 국내 식당 중 처음으로 3스타(★★★)를 받은 한식당 가온과 라연(신라호텔)은 올해도 무난히 별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미슐랭코리아는 8일 서울 잠실 시그니엘 서울에서 글로벌 미식가이드 '미슐랭(미슐랭) 가이드 서울 2018'을 발표했다. 가온과 라연이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3스타를 받았다. 요리를 맛보기 위해 특별히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다는 3스타 레스토랑은 현재 세계적으로 100여 개에 불과하다. 요리가 훌륭해 찾아갈 가치가 있다는 2스타(★★)는 한식당인 가온, 권숙수, 정식당과 일식인 코지마 등 4곳이 받았다. 정식당과 코지마는 지난해 1스타(★)를 받았으나, 올해 한 단계 올라섰다. 곳간과 권숙수는 2년 연속 2스타를 받았다. 지난해 2스타를 받은 롯데호텔

의 프렌치 레스토랑 피에르 가니에르는 호텔 리모델링으로 영업을 안해 평가에서 제외됐다.

1스타 레스토랑은 다이닝인스페이스, 라미피에, 밍글스, 리스토란테 에오, 발우공양, 보트르메종, 바체나, 스와니에, 알라 프리마, 유유안, 제로 콤플렉스, 진진, 큰기와집, 도사, 익스퀴지, 주옥, 테이블 포포 등이 선정됐다. 이중 익스퀴지, 도사, 주옥, 테이블 포포 등 네 곳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가세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스타를 받은 라연(신라호텔)과 중식당 유 유안(포시즌스호텔서울) 외에 새롭게 스타 레스토랑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호텔 레스토랑은 없었다.

한편, 스타 레스토랑 외에 48개의 레스토랑이 빙 구르망(Bib Gourmand)으로 선정됐다. 서울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반영한 식당 중 3만 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하동관과 진미 평양냉면 등 17곳이 새로 선정됐다.

김재필 기자 oldfield@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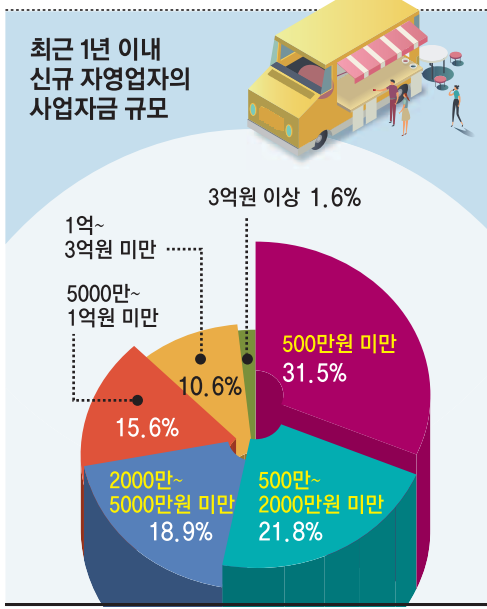
비즈 TALK TALK

- “일할 준비 됐느냐”(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7일 청와대 국민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한미 FTA 협상 한국 책임자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보고 빼 있는 질문을 던지며)
- “한국 기업 미국서 5년간 64조원 구매 계획”(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8일 미국 백악관 주요 인사를 초청한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규모가 상당해 양국 무역불균형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 “비트코인 거품은 긍정적 신호”(조셉 루빈 컨센시스 창업자,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창업자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오히려 업계를 튼튼하게 발전시킬 것이라며)

데이터 경제

자영업자 72.2% “5000만원 미만 소자본 창업”

통계청이 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72.2%는 사업자금이 5000만원 미만인 소자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자본이 없거나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해도 31.5%에 달했다. 1억원 이상은 12.2%였다. 한편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가 현재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걸린 준비기간은 '1년 미만'이 88.9%였다. 10명 중 9명 가량이 1년 미만의 짧은 준비 과정을 거쳤다. 세분화해 보면 ▲1~3개월 미만 52.0% ▲3~6개월 미만 21.7% ▲6개월~1년 미만 15.2% ▲1년 이상 11.1%로 조사됐다.



편집 | 이수진 기자